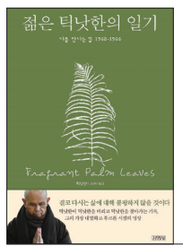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틱낫한의일기:나를만나는길1962-1966	틱낫한	김영사	6	통도사승가대학의불교철학강의:서양철학교수가통도사에간까닭은	홍창성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맛지마니까야(2)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부처님의생애(무선=보급판)	조계종교육원	조계종출판사	9	불교는무엇을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지음	한산암
5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8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자타카전서:부처님본생이야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책세상

"결코 다시는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



젊은 틱낫한의 일기
틱낫한 지음/권선아 옮김
김영사 펴냄/1만5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살아 있는 부처'로 불리며,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스승 틱낫한이 우리에게 남긴 젊은 날의 발자취이다. 이 책은 30대 중반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과 컬럼비아대서 연구하던 시절의 삶과 수행,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후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와 전쟁이 진행되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겪은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까지, 틱낫한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적어 내려간 일기이자 명상록이다. 독재 정부의 탄압과 전쟁 공포 앞에서도 꺾이지 않던 평화를 향한 기원과 진리를 향한 마음을 틱낫한 본인의 목소리로 전달해 독자에게 생생하고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는게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삶은 심지어 고통 가운데서도 기적"

한평생 평화를 위한 가르침을 펼치며 참여 불교를 설파하고, 걷기 및 마음 챙김 명상 수행 등으로 불교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린 틱낫한이 지난해 1월 우리 곁을 떠나 입적했다. 그는 1926년 베트남서 태어나, 종교인으로서 자비와 평화를 전하며 베트남 근대화를 앞당기려고 노력하다가 귀국 금지 조치를 받고 수십 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이 책 〈젊은 틱낫한의 일기〉(원서: Fragrant Palm Leaves)는 틱낫한이 길고 긴 망명 생활을 하기 직전인 1962~1963년 미국 프린스턴 대와 컬럼비아 대학교서 가난한 유학생으로 연구와 공부 하던 시절, 1964~1966년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와 평화운동 하던 시절 등 이 두 시기의 이야기를 틱낫한 스님이 직접 적은 일기 형식으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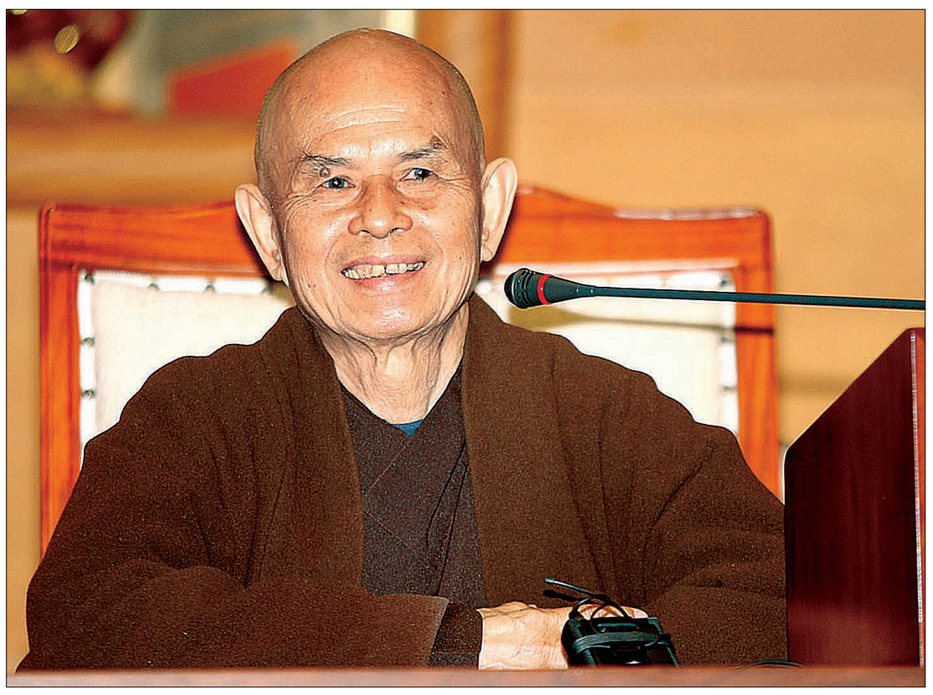
젊은 시절 그의 생각과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초기 명상록인 이 책이 국내서 조명받게 된 계기는 우리에게 '셜록'으로 유명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 배치가 제작하고 내레이션을 맡은 영화 〈나를 만나는 길(Walk with me)〉(2022년 5월 국내 개봉)에 내레이션으로 책 속 문장이 소개되면서이다. 하지만 숨겨진 보물 같은 이 책에는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젊은 시절 틱낫한의 내면적 성찰,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올곧이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킨 한 인간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어, 60년이란 시간을 거슬러 오늘의 독자가 읽어도 귀한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심하게 맞고 찢겼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미국 생활 중에도 틱낫한은 이념 간 갈등이 첨예하던 가난한 고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젊은 구도자의 면모를 보인다. 보수적인 불교 지도층에게 밀려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그는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보살필 암자를 만들기로 한다. 뜻을 함께한 친구들과 1957년 베트남 중부 산악지역에 사원 '프엉보이(베트남어로 '향기로운 종려나무 잎'이란 뜻)'를 일구었으나 베트남전쟁 와중에 파괴되고 말았다. 미국에 건너와서도 그는 프엉보이에서 보낸 소중한 날들과 사람들을 그리워 했다. 그에게 프엉보이는 단지 사원 이름만이 아니었다. 프엉보이는 안식처이자 수행 공동체였으며, 희망이자 진리를 향한 고귀한 마음 그 자체였다.

이 책에서 틱낫한 스님은 "우리는 프엉보이를 절대 잃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스러운 현실이다.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 그저 '프엉보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났다. 나는 어제 만에게 편지를 썼다. 그에게 비록 태풍과 돌풍이 우리를 반대편으로 던져버렸지만, 믿음이 우리를 서로에게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손수 일군 프엉보이와 함께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은 화톳불처럼 따듯하고, 그런 그리움과 외로움을 동력으로 수행이 성장했노라고 저자는 고백한다. 틱낫한 스님은 책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외롭지만, 폭풍우 끝에서 살아남을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다. 이와 같은 폭풍우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의 나일 수 없다. … 나는 심하게 맞고 찢겼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깨달음은 폭풍우처럼 일순 몰려왔고, 그때마다 틱낫한은 진정으로 행복했다. 폭풍우는 10월에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 같았지만 몇 시간 뒤 내 몸이 연기가 되어 둥실 떠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름의 희미한 한 조각이었다.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이 견고한 실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전혀 견고하지 않음을 보았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심지어 깨달음의 경험도 아니다. … 나는 내가 '나'라고 여기던 실체가 사실은 허구라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의 참된 본성은 훨씬 더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한다.



'살아 있는 부처'로 불리며,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스승 틱낫한 스님의 생전 법문 모습.

틱낫한이 자신을 찾아가는 젊은 날의 기록

그의 가장 내밀하고 푸르른 시절의 명상록

독재 정부 탄압과 길고 긴 망명 생활 지속

그 속에서도 치열히 간구한 진리향한 수행

"선한 행동의 첫 번째 수혜자는 자기 자신"

베트남으로 돌아온 그는 베트남 지역 경제 발전과 교육, 의료를 위한 주민 자치마을인 '스스로 돕는 마을'을 꾸리고 대학 학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군부는 무능했고, 고위층 불교 승려들은 보수적이고 안일했다. 정치인은 농부들을 속였고, 군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베트콩을 솎아내기 위해 '전략적인 마을'을 만들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틱낫한 스님은 책 속에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어떤 것도 갖지 말고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는다. 군인들이 젊은이와 노인, 여자와 남자를 모으고 특정한 구역으로 그들을 끌고 갔다. … 군인들은 무기 은닉처와 해방 전사들과의 연결고리를 모조리 없애버리기 위해 옛날 마을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의 집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공포에 질린다. 그리고 소리치며 항의한다."고 위험했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다.

이같은 상황에도 틱낫한 스님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연일 제트기가 내지르는 지속적인 비명이 죽음과 파괴를 몰고 와도, 도시로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와도, 어린아이들이 생계를 위해 노동으로 내몰려도. '스스로 돕는 마을'의 간이 교실에 학생들이 몰려 너무 붐비자, 대책 마련을 위해 부모들이 모여 손수 학교를 짓기로 하고 힘을 모으는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틱낫한 스님은 "이 훌륭한 젊은이들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은 내게 커다란 희망을 준다. 나는 그들 노력으로 혜택을 받은 제일 첫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의 사랑과 인정 그리고 신뢰를 주고, 그것이 나의 꿈을 새롭게 한다. 자신의 선한 행위의 첫 번째 수혜자는 언제나 바로 자기 자신이다."고 설명했다.

폭력과 죽음으로 얼룩진 전쟁과 탄압 속에서도 틱낫한 스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마치 무상과 자아가 텅 비어 있음에도, 그토록 많은 잔혹함과 눈먼 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미워하는 법을 모르는 꽃처럼, 그저 삶의 순환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풀과 새, 구름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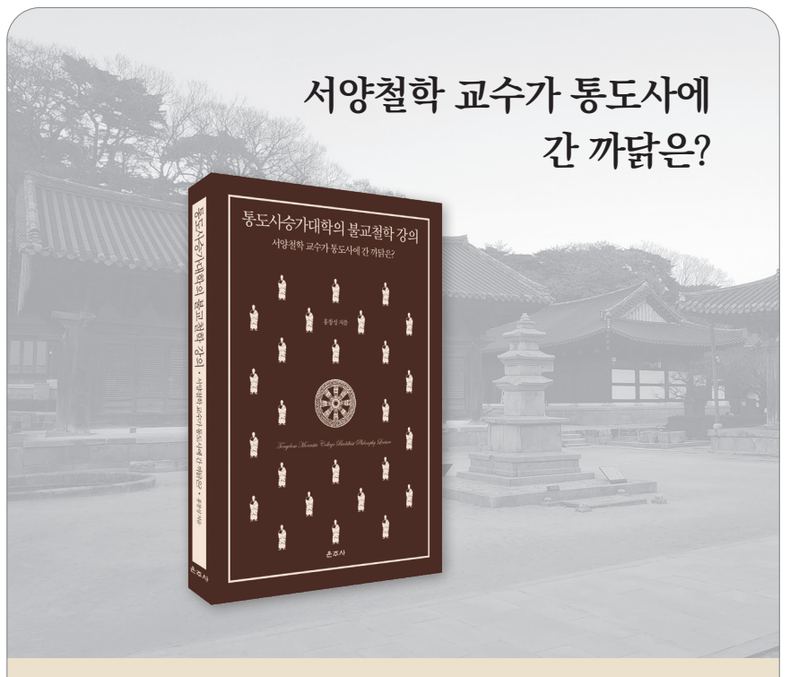
이번 책인 〈젊은 틱낫한의 일기〉에서 스님은 이 경이롭고 안타까운 4년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까지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한다. "검은 진흙과 하얀 눈이 추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위대한 자비의 눈을 가질 수 있다. 그 눈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보자"고 당부한다. 용광로 같던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은 위대한 스승이 삶을 통해 보여준 깨달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스님은 책 속에서 말한다. "만일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당신의 내장을 꺼내더라도 미소 지으라.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은 그의 교육, 그의 상황 그리고 그의 무지이다. 그를 보라.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작정하고 덤벼든 자, 당신 위에 불의를 쌓아 올리는 자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보라."고

〈마음의 숲을 거닐다〉 저자이자 임상심리학 박사인 잭 콘필드는 이 책에 대해 "틱낫한의 책 가운데 가장 다정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뜻이 깊다. 이 책은 그가 심은 경이로운 지혜의 씨앗을 잘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저자 틱낫한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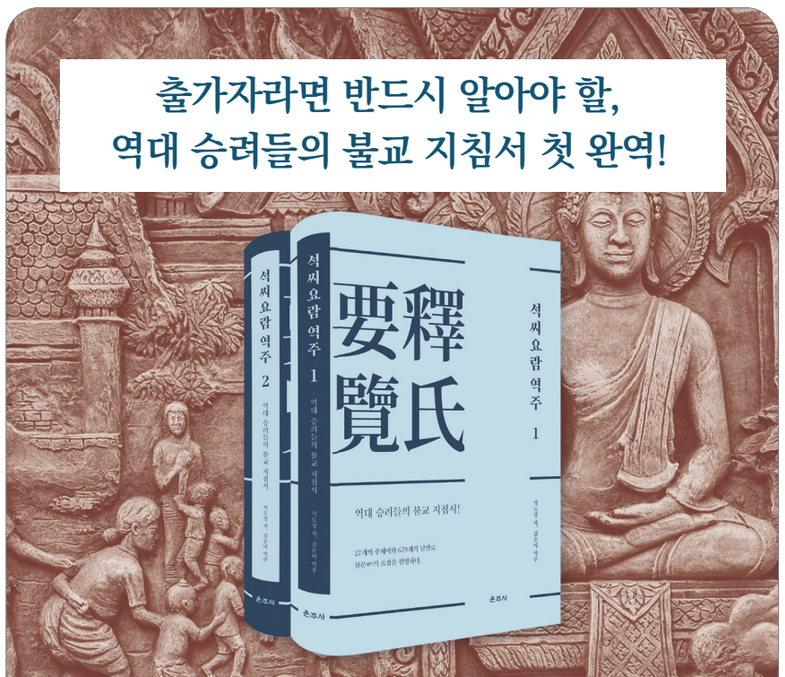
오늘날 선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자 세계적인 교육자로 70년 가까이 '마음다함(mindfulness)'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했고 이런 활동에 힘입어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되었으나,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했다. 1982년 보르도에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Plum Village)'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운동을 전개했다. 30년 이상 수련회를 조직하고 이끈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와 청년에게 마음다함을 전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행법을 정립했다. 이러한 깨달음과 가르침에 뿌리를 둔 비종교적이고 비종파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플럼빌리지서 운영하는 '웨이크업 학교'를 통해 수많은 교사들에게 전파해왔다. 2022년 1월 21일 베트남 후티우 사원 내에 있는 거처에서 입적했다. 10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국내 소개된 대표 도서로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틱낫한 명상〉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화해〉 〈화〉등이 있다.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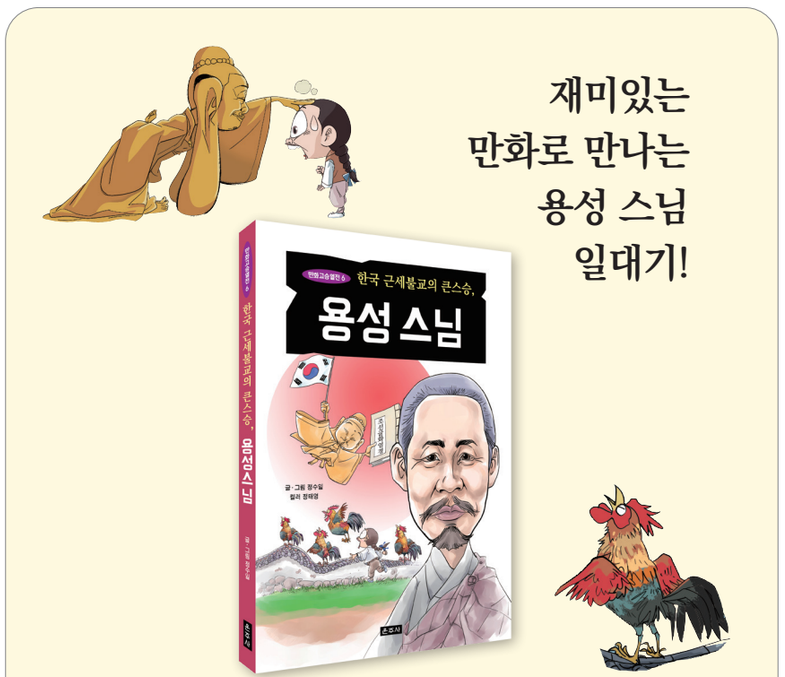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